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1, 2009. 2, pp. 109-134.

조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기술지:
다중의 경계 밖에 가족 만들기

장 혜 경 +
(가톨릭대학교)
손 현 미
(가톨릭대학교)
임 정 현
(가톨릭대학교)

[요 약]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가족 해체의 대안으로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다시 짚어보아야 할 것은 조손가족이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이다. 조손가족에 대한 접근은 정책결정자나 전문가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므로 조손가족구성원들의 당사자 시각은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조손가족 조모들의 양육 경험의 의미를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10명의 조손가족 조모들을 정보제공자로 하여 수집한 자료 분석 결과 조모들의 경험은 '다중의 경계 밖에 가족 만들기'라는 문화적 주제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손가족이 하나의 가족 체계로서 갖는 가치를 수용하고 이 체계의 고유성을 강화하고 보존하며, 조모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양육 기능을 더욱 계발하고, 조모와 손자녀 중간세대와의 연결을 꾀하는 실천적, 정책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조손가족, 양육 경험, 문화기술지

+ 주저자

1. 문제 제기

최근 부모의 이혼과 별거, 실직, 알코올 남용이나 질병(허남순, 2004; 정일선, 2004)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조부모가 아동 양육을 전담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손가족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주 접하는 가족 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이후 가장 특징적인 가족 형태 변화로 조손가족의 증가(Fuller-Thompson and Minkler, 2001)를 드는 다른 나라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부모와 분리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비공식적 보호체계'로 존재하여 왔던 조손가족은 1999년부터 시행된 가정위탁보호제도에 의해 공식적 아동복지시스템의 일부분이 되었다. 가정위탁은 위탁주체에 따라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이모·삼촌 등에 의한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으로 나뉘는데, 조부모의 대리양육은 가장 빈번한 배치 선택으로 꼽힌다.[1]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할 때 다른 위탁 형태에 비해 시설보호가 줄 수 없는 양육의 지속성이 보장되며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Geen, 2004)을 준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 부모와 확대가족, 지역사회와 더 많은 연결감을 준다는 면에서 좋은 대안이다.

그러나 2세대 가족이라는 특정 형태의 가족을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정상 가족'으로 상정할 때 조손가족 등 다른 형태의 가족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배제된다(김주숙, 1982). 조손가족을 사회 문제에 의해 야기된 기형적인 가족 형태로 여기거나 정상 가족을 지향하는 과정 중의 가족 형태로 보고, 조모가 양육을 맡을 경우 정상적인 가족생활 주기에서 어긋나므로 가족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사회에 문제를 야기하는 체계로 여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손가족 내 조모는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이 환경적 압력에 굴복하여 양육에 적절한 자원이나 기능을 갖지 못한 채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는 희생자로, 손자녀는 당연히 받아야 할 부모의 양육을 박탈당하여 많은 문제를 안은 채 성장해 가는 희생자로 그려진다. 따라서 양육을 원치 않는 조모는 양육 부담을 크게 느껴 우울, 스트레스, 신체적 문제가 같은 연령 집단에 비해 크고(김미혜·김혜선, 2004; 최해경, 2002; Jendreck, 1993; Minkler, Driver, Roe, and Bedeian, 1993) 양육의 질도 부적절하여서, 이에 따르는 손자녀의 적응이나 발달의 문제도(김정은, 2001; 허남순, 2004; 오선영·장혜진·조윤정, 2006)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 접근에서도 아동과 양육하는 사람들을 영속적인 한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친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개입은 결여된 양육 기능을 보충하는데 초점을 둔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도 이러한 연구들과 시각을 같이 하면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

1) 2005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리양육이 58%, 이어서 친·인척 위탁이 33%, 일반 위탁이 9%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은 조모가 맡고 있는 경우가 정일선의 연구에서 97.3%, 김정은의 연구에서 86.2%로 나타나 조모가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조부모 양육은 조모 양육으로 대치해서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양육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이나 접근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연구자, 정책 결정자, 실천가들이 조손가족 고유의 가치와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Scannapieco and Jackson, 1996) 문제 중심적 시각에서 조손가족을 보아왔다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증가하고 있는 주요 가족 단위로서 조손가족이 갖는 가치가 서구 중심적 개념의 핵가족이 갖는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손가족의 탄력성에 기여해온 문화적, 가족적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조부모들은 제도적 개입 이전에 이미 가족 주변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가족 전략을 구사하여 가족 형태의 변화를 꾀하여(김주숙, 1982; 조은, 1990)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살고 있다. 이렇게 양육을 전담하게 된 조부모들이 대부분 연령, 건강, 수입, 학력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고 손자녀 양육 전담이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부담과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조부모들은 사랑과 책임감, 가족 의무를 이유로 기꺼이 양육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조부모들과 함께 손자녀들은 한 가족으로서 강한 결속력을 보인다.

조손가족은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양육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조부모 양육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조손가족의 문제나 결함을 찾아내 보충하려는 접근 보다 조손가족이 가진 문화적, 가족적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과 실천에서 좀더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문적 프리즘으로 조손가족을 들여다본 많은 연구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현지인인 조손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 가족적 강점은 현지인들의 언어로 표명되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주제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리양육 위탁가정 조부모(이현주, 2007), 조손가족 조부모(김유미・김명희・정여주, 2008), 손자녀 교육을 위해 이농한 조모(양영자, 2007)들의 경험과 조손가정 아동(오선영・장혜진・조윤정, 2006)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조손가족으로서의 경험이 양육시기별, 양육유형별, 양육사유별, 가족구성형태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이현주, 2007; 김유미・김명희・정여주, 2008)를 볼 때, 다양한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폭넓은 조손가족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빈곤한 조손가족 내에서 배우자 없이 양육을 전담하는 조모들의 손자녀 양육 문화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얻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통해 양육의 일상적 경험을 관통하는 문화적 주제를 찾아보려 한다. 여성으로서, 노인으로서, 빈민으로서 삼중으로 배제된 범주(안진, 2005)에 더하여 손자녀의 양육을 맡음으로써 또다시 배제되는 범주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조모들의 경험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조손가족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빈곤한 조손가족 내에서 배우자 없이 양육을 전담하는 조모들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나타나는 문화적 의미와 문화적 주제는 무엇인가 이다.

2. 선행 연구

우리나라에서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은 1999년 가정위탁보호제도 시행 이후 생겨났으며, 따라서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그 양이 매우 적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도 제한적이다. 외국과 다른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놓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경험에 더하여 조손가족으로서의 경험을 알아본다는 것은 조손가족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조손가족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그 궤적을 추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갈래의 연구들은 관찰자 시점에서 외계로 드러나는 조손가족들의 행태를 조명하고 있다. 가족 형태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상가족의 위치와 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조손가족의 위치와 기능을 분석한다. 두 번째 갈래의 연구들은 조손가족 구성원들을 활동 중인 사회적 행위자로 상정한다. 여기서는 조손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그리고 관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지양식과 행위양식을 형성해내며 세계를 전유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이동기외 역, 2002).

1) 관찰자 시점의 조손가족 선행연구

관찰자 시점을 가진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조손가족은 사회적으로는 그 형태에서, 경제적으로는 빈곤과 관련하여, 문화적으로는 행위양식에서, 극히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거나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곳에 위치한다.

조손가족의 형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조손가족의 주변성과 외계성은 잘 드러난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조손가족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양육 동기는 중간세대가 사회적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양육 능력을 잃어 버렸다는 점이다(Wiener, 2003). 양육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은 약물 남용이나 학대 및 방임이 70% 이상인 미국(Carolan, 2003)과 달리,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한 자녀의 이혼, 가출, 사망 등에 의한 가족해체가 압도적인 것(정일선, 2004; 허남순, 2004)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된 대부분의 조부모들은 학력 수준이 매우 낮고, 여성 독거노인 가구, 여성 노인이 고령층인 가구 등(정일선, 2004)으로 이미 주변화되거나 외연화되어 있었다. 다차원적 배제를 통해 형성된 조손가족의 형태를 살펴보면 양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대부분 홀로 된 조모이고(정일선, 2004), 가족관계 유형은 친손자녀가 압도적으로 많아 가부장적 친족 관계의 뿌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장기 양육 보호가 대다수(김정은, 2001; 김미혜·김혜선, 2004; 정일선, 2004; 허남순, 2004)이다. 조부모 양육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들과 사회적·정서적인 면에서도 부정적 결과(Newby, 1993; Pinson-Millburn, Fabian, Schlossberg and Pyle, 1996; McLean and Thomas, 1996)들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들 연구의 공통된 주장이다.

경제적으로 다른 생계수단 없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가구(정일선, 2004)가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 더욱 나빠진다(정일선, 2004; 이현주, 2007). 양육에 따른 보살핌노동으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부모 역할을 맡기 전보다 더 신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며(Berrick, 1991; Jendrek, 1993; Minkler et al., 1993; Pinson-Millburn et al., 1996), 늘어난 생계비를 획득하기 위해 임노동을 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행위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조손가족은 더욱 주변으로 밀려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므로 양육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김정은, 2001; 김유미・김명희・정여주; 2008), 이러한 이유로 손자녀에게 제공되는 양육의 질도 낮은 수준이고 이에 따르는 손자녀의 적응이나 발달의 문제는(김정은, 2001; 허남순, 2004; 오선영・장혜진・조윤정; 2006)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로이 형성된 가족 특성으로 인해 또 성인 자녀가 부재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자원의 결핍 때문에(김정은, 2001) 조손가족은 잘 기능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핍은 사회적 자원으로 보충될 수 밖에 없다. 조모가 양육하는 손자녀들은 흔히 연령에 맞는 기술이 부족하고, 낮은 자존감, 발달 지연, 성적 행동, 과다행동 등의 문제(Gibson, 2002)를 가지고 있다. 조부모들은 또한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행위양식으로 인해 주변적 삶을 사는 노인들 가운데서도 밀려난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예기치 않은 역할 전환을 가져와 발달 주기상 휴식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인식할 때(Burton, 1995; Pinson-Millburn et al., 1996), 정상적인 발달 주기상의 휴식기간을 누리는 노인들과 일상에서 차별되기 때문이다. 다른 노인들이 누리는 여가시간과 비교하여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들의 재미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Jendrek, 1993) 시간을 대폭 줄이도록(정일선, 2004) 한다. 친구들과의 접촉은 적어지고, 많은 경우 친구 관계에 문제를 갖는다(Jendrek, 1993). 여가와 친구관계의 변화는 조부모들에게 정서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주어서, 조모들의 우울 정도는 사적 지지망 크기가 작을수록, 의논상대가 없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김정은, 2001; 최해경, 2002) 드러난다. 또한 또래 노인들과 비교하여 정서적 소모감을 느끼며(Berrick, 1991; Jendrek, 1993; Minkler et al, 1993; Pinson-Millburn et al., 1996) 매우 스트레스가 심하다는(Burton, 1995; Pinson-Millburn et al., 1996) 연구결과도 있다. 조부모 양육의 문제로는 법적・재정적 관심사, 사회적 문제들, 악화된 건강, 손자녀들의 특수한 욕구들, 부적합한 주거, 안전하지 않은 이웃, 손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Weiner, 2003) 등 인간생활의 광범위한 측면이 언급된다.

2) 행위자로서의 조손가족 선행 연구

손자녀 양육으로 초래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전제로 하더라도, 조부모들은 상황에 포획된 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지 않고 조손가족이라는 가족 형태와 이에 따르는 행위양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조손가족이라는 세계를 전유해간다.

조손가족이라는 가족 형태를 이룰 때 조부모들은 많은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음”으로 인해 손자녀 양육을 받아들이지만, 그 정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쁨을 갖게 됨”으로(Wiener, 2003) 바뀌어 간다. 따라서 양육 경험을 하게 될수록 조부모들은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는다(Minkler et al, 1993). 문제 가족, 결손 가족이라는 용어로 압축되는 사회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디서나 확대가족 특히 조손가족은 가족분리와 상실에 대한 가족들의 전통적 반응으로 가족 보존의 기제가 된다(Geen, 2004). 조손가족 내에서 손자녀들은 의미있는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 상담, 가르침, 사회적 규제와 같은 무형의 지원 뿐 아니라, 물질적 지원, 수입, 보호, 가정사 보조 등 유형의 지원도 함께 제공(Wilson, 1989)받는다. 이러한 면에서 친부모가 양육 행위를 유기한 손자녀를 위한 탄력적이고 자연적인 양육 시스템인 조손가족은 손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지지적이고 임파워링된 가족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Scannapieco and Jackson, 1996)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손가족으로서의 행위양식은 조부모의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양육행위와 관련된다. 조부모의 양육행위를 논할 때 조부모들의 양육 기능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조부모의 고유한 양육 역할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것과 관련되므로(Kivett, 1991) 조부모들의 부족한 기능보다는 차라리 정서적 역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다. 조손가족 손자녀들은 많은 행동상, 정서상 문제를 보이지만(이현주, 2007), 이것은 대개 조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족 해체를 전후한 경험으로 인한 것이다(Brown, 2003). 손자녀들은 조부모들이 자신의 완전한 부모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가지고 그들과 항상 있어주길 원하며, 조부모를 통해 안정감을 찾고자 한다(Brown, 2003). 또한 책임감 없이 떠나버린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대화자 역할을 하기 원한다(Brown, 2003).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손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기회를 갖게 되고, 손자녀들에게 가족유산을 교육할 기회를 얻으며, 손자녀의 사랑을 얻고 교류하는, 세 종류의 보상을 경험한다(Burton, 1992; 김유미・김명희・정여주, 2008). 이전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만족감이나 활기, 생명력을 경험하면서(Carolan, 2003; 김유미・김명희・정여주, 2008)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절반 이상이 양육을 시작한 이후 생의 목적이 새로이 생겨났음(Jendrek, 1993)을 고백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조손가족이라는 특색있는 가족 구조를 이루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조모들의 삶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여 조손가족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조손가족의 문화, 가족성원의 관점, 문화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 조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Spradley의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1) 표집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에서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연구 결

과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의 자격을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모로 제한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 손자녀 양육 경험과 제도적 경험에 관해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조모들을 정보제공자로 선택하였다.

기준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위한 정보제공자 선택 요건 다섯 가지[2]를 기준으로 하고(박종흡 역, 2003) 이 기준을 충족하는 조모 10명을 표집하였다. 10명의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손자녀를 양육하여 왔다.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는 부모 이혼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재 1~3명의 손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표집과정에서 먼저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에게 의뢰하여 정보제공에 적합한 조모들을 추천 받았고, 이들 가운데 연구참여를 수락한 조모들을 표집하였다.

〈표 1〉 정보제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I: 정보제공자)

구분	연령	학력	직업	손자녀 수	손자녀 연령,학년	양육 기간	양육사유	부모와의 관계
I1	69	신학원졸	없음	1	11/초4	10	부모 이혼	부모와 단절
I2	74	초졸	없음	2	16/중3 12/초5	6	부모 이혼	부모와 단절
I3	66	초졸	없음	3	11/초4 9/초2 7/어린이집	9	부모 이혼	부와는 단절 모와는 간헐적 만남
I4	68	초2	없음	1	14/중1	13	부모 이혼	부와 동거
I5	65	고졸	없음	2	15/중2 10/초3	6	부모 이혼 파산	부는 2년전 방문 모는 단절
I6	73	무학	없음	2	16/중3 11/초4	10	부모이혼 경제적 어려움	부와 단절 모와는 간헐적 만남
I7	70	초졸	없음	2	18/고2 17/고1	10	부 사망 모 가출	모와 단절
I8	70	중졸	없음	1	18/고2	16	부모 이혼	부모와 단절
I9	74	고졸	없음	3	17/고1 12/초5 10/초3	5	부모이혼	부와는 간헐적 만남
I10	82	무학	없음	1	18/고2	5	부 사망 모 가출	모와 단절

면접자료와 생활현장 관찰자료[3], 문서자료[4]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면접 방법으로는 생애사 내

2) 완전한 문화화, 현재 참여, 생소한 문화현장,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간, 비분석적 정보제공자가 Spradley가 말하는 정보제공자의 다섯 가지 선택 요건이다.
3) 연구자 중 1인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여러 차례의 가정방문을 통해 조손가족의 생활환경, 가족과의 역동, 이웃관계 등을 관찰하였다.

러티브 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조모들의 전체 삶의 맥락 속에서 손자녀 양육 경험을 풍부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모들이 살아온 경험을 총체적으로 들어보는 일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세 명의 연구자가 각기 3~4명씩을 면접하였으며, 면접은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총 면접 회수는 22회였으며, 가족의 일상과 생활세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조모들의 집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2) 자료 분석과 연구의 정당성 확보

자료분석은 면접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관찰과 문서기록 자료는 연구자들의 해석을 다양하게 해주었다. 서술적 질문으로 이루어진 1차 면접을 마친 뒤 연구자들은 각기 녹취록을 여러 차례 윤독하면서 정보제공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며 문화적 의미를 지닌 내용을 분석하였다. 토의과정을 거쳐 연구자 간에 중첩되어 영역으로 가정되는 여섯 개의 영역[5]을 도출했다. 2차 면접부터는 가정된 영역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적 질문을 사용하였고, 세 명의 연구자가 전체 텍스트를 가지고 분류 분석[6]을 위하여 각 영역 내의 분석을 시도하여 문화적 의미가 풍부한 네 개의 영역을 선정하였다. 영역 별로 나누어 분석된 내용은 한 명의 연구자가 전담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후 완성된 분석 내용을 다시 윤독하며, 중복되는 내용이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수정하였다. 분류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의 관계를 드러내고 각 영역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화적 주제를 추출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와 녹취록을 여러 차례 정독하였다. 이 분석과정을 통해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문화적 패턴을 드러내는 네 가지 영역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네 영역은 '다중의 경계 밖에 가족 만들기'라는 문화적 주제로 통일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빙성(credibility), 전사성(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i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기준으로 연구의 확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해야 한다는 Lincoln과 Guba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구의 확실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신빙성 확보를 위해 면접과 관찰, 기록을 통한 자료의 삼각측정, 세 명의 연구자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연구자의 삼각측정을 하였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학문 동료들에게 정기적으로 연구 과정을 보고함으로써 정직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담보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의 전사성을 위해 정보 제공자에게 자료분석의 결과를 쉽게 설명하여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는 정보제공자를 통한 재확인을 시행하였다. 신뢰성을 위해 원자료와 자세한 연구 과정의 기록들을 감사가 능하게 남겨 놓았다. 확증성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에 체계적 방법을 활용하고 그 절차를 기록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은 동료 연구자들이 상호 점검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검증을 거쳤다. 연구 결과는 연구자 세 명이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

4)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초기면접지, 과정기록지, 서비스과정 및 결과보고서 등의 다양한 문서자료를 통해 정보제공자들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5) 영역(domain)은 학문적, 사회적 의미를 가질 만한 내용을 찾아 문화적 의미체계를 벗기기 위해 큰 범주 속에 포함된 문화적 상징을 말한다(박종흡 역, 2003).

6)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은 문화적 영역들이 조직된 방식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전 단계인 영역분석의 과정을 통해 발견된 수많은 영역들 중, 연구자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그 영역 안의 하위집합과 이 하위집합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박종흡 역, 2003).

사회적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조손가족의 조모들을 정보제공자로 한 연구에서 가장 큰 윤리적 이슈는 연구참여 동의에 관한 것과 정서적 고통에 관련된 부분이었다(유태균, 2001). 특히 연구자 중 한 명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연구참여가 강압적이 되지 않도록, 연구참여 전에 연구내용과 절차,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정보제공자들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 중 힘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을 때 상담을 해주도록 사례전담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미리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정 중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정보제공자는 없었으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러 번 방문한 연구자들에게 도리어 고마움을 표시하며 보잘것 없이 여겨지던 자신들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4.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조모들의 일상문화는 사회적 구별을 위해 설정되는 경계를 중심의미로 하여 '경계 밖 일상의 재구성'. '절대 빈곤의 경계보다 강건한 상대 빈곤의 경계', '배제와 포섭, 양면의 경계를 지닌 정상 문화와의 화해', '열망하지만 요원한 경계 넘기'라는 네 개 영역으로 해석되었다. 이 영역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의미들은 '다중의 경계 밖에 가족 만들기'라는 문화적 주제로 수렴되었다.

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계급, 집단들은 각기 다양한 취향과 습관을 통해서 다른 계층과 계급, 집단들과 구별된 모습을 갖게 되며, 적극적으로 구별짓기를 수행한다(최종철 역, 2005). 구별짓기는 '우리'와 '타자' 간에 사회적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 안의 포섭과 경계 밖의 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손가족 내에서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양육을 전담하는 조모들은 빈곤이라는 경제적 수준에서, 노령이라는 연령에서(안진, 2005), 노인으로서 양육을 전담한다는 생애주기 차원에서, 노인으로서의 일상과 다른 일상을 영위한다는 차원에서, 양육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양육자라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삶의 경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 밖에 존재한다. 또한 조손가족은 법적 기준에서(오선영・장혜진・조윤정, 2006), 가족 구조 차원에서, 가족 가치 차원에서 역시 경계 밖에 존재한다.

연구에 참여한 조모들은 다중의 경계 밖에서도 조손가족을 지켜가기 위하여 최적의 가족 일상을 만들고 가족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조모들은 경계 밖의 삶에 익숙하지만 경계 안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손자녀들이 체험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여러 전략을 구사한다. 자신들의 양육을 거친 손자녀들이 직업 획득을 통해 경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지만, 빈곤과 이에 따른 교육 기회의 제한, 문화적 경험의 제한 등으로 손자녀들의 경계 넘기는 쉽지 않다. 부정적으로 예기되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넘어 전달되는 사회적, 개인적 지지와 자원을 바탕으로 조모와 손자녀들은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다중의 경계 밖에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

1) 경계 밖 일상의 재구성

손자녀를 양육하기까지 조모들의 삶은 “그럴려면 태어나지를 말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의 사회적 극한성을 함축한다. 결혼 이전의 삶은 동시대의 많은 여성들과 비슷하게 비정상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절대 빈곤에 노출되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통과의례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자녀를 얻게 되고 ”남들과 같은“ 일상의 시기를 잠시 거치지만, 일찍 남편과 사별하거나 별거함으로써 대부분의 조모들은 자녀와 함께 이미 일탈적 가족 형태를 경험하였다. 자녀들만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키우느라 안 해본 일” 없이 진력해 보았지만, 자녀들은 경계 밖이라는 조모의 삶의 위치를 물려받았다.

자녀들이 결혼함으로써 조모들은 양육자의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익숙하고 남과 다르지 않은 노인의 일상을 점유할 수 있었다. 비록 가족 구조, 연령, 건강, 경제적 여력이라는 여러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므로 동년배 노인들과의 동일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많은 노인과 공유되던 정체성은 조모에서 주양육자로 탈바꿈(Carolan, 2003)하면서 상실되었다. 극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모들은 완수했던 양육의 역할을 “웬수보다 더한” 자녀들이 유기하였기 때문이다. 양육에서 방관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해오던 조모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주양육자의 역할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으로 저항해보지만, 그 이외의 대안은 혈연 가족의 해체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유일한 가족보존의 기제로서(Geen, 2004) 손자녀의 양육을 받아들인다(Wiener, 2003). 자신에게 주어진 손자녀 양육에 대해 조모들은 타율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조모들은 “내 딸이 낳아준 자식”이니까, 혹은 “봉사도 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와 같이 혈연 보존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소멸을 향해 가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마지막 남겨진 가족으로서의 의무(Minkler et al., 1993)를 다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니 그거 안 키우구 내보내며는, 애들 다 내쫓으며는 고아원 밖에 더 갑니까?(I3)
누가 부잣집에 주라는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구요. 어떻게든 내가 키워봐야지.(I10)

손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조모들의 일상은 노인으로서의 일상과는 전혀 다르게 배열된다. 잠시 노인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였던 조모들은 다시 경계 밖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간다. 자녀 양육을 마친 노인들의 일상이 여가와 건강 보존을 중심으로 배열되는데 비하여, 주양육자가 된 조모들의 일상은 손자녀 양육행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조모들도 이러한 일상의 재구성을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기술할 때 손자녀 양육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분하고 있었으며 그 주요 주제는 생활양식의 변화(Minkler et al, 1993)였다. 조모들은 지금까지 누려온 노인으로서의 일상을 “적적하고” “할 일도 없어” 권태로운 일상이었던 것으로 재의미화하고, 많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Jendrek, 1994) 더 이상 갖지 못했던 활기와 생동감도 갖게 해주는(Carolan, 2003) 전환적 사건으로 손자녀 양육을 받아들인다.

생애를 새롭게 이런 데서 찾는다는.... 생활하는 거는 식구가 있어 가지고 삶에 인생을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거...(I5)

주양육자로서 일상의 재구성은 일상행위의 재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조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의 기억을 되살려 손자녀 양육에 충분한 행위양식들을 만들어 나간다.

옛날에 배워 놓은 거를 여기서 애들한테 밑바라지 해주는 거 되게 보람있어요.(I2)

양육행위의 근간은 의식주를 제공하는 보살핌 행위로 이루어진다. 큰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의복이나 주거의 개선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조모들에게는 대부분 역량 밖의 일이다. 그래서 조모들은 비교적 적은 경제적 자원으로도 충족되는 식생활에 관한 보살핌 행위에 전념한다. 특히 지나온 삶의 경험으로 의식주 중 먹는 것이 최우선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조모들은 "오늘은 뭘 해줄까 생각"하고 차려낸 밥상을 받은 손자녀들의 반응에서 많은 위안을 얻는다.

김치찌개두 해주구 그러며는 다른 데서 보다 맛있다구 잘 먹구.(I1)
다른데 가면 맛없어, 할머니.(I3)

조모들은 보살핌 행위로 인하여 다른 노인들과 비교하면 여유있는 시간도 없고 동년배 노인들과 교류할 기회도 줄고 일도 많아진다(Mclean and Thomas, 1996). 이렇게 노인들과의 동질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발휘하는 양육행위는 그 양과 질에서 경계 안의 기준에서는 물론이고 경계 밖의 기준에서도 언제나 충족하지 않다.

이게 안되더라구요.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더라구요.(I1)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두 소용 없어요, 소용 없어요.(I6)

어렵게 꾸려 나가고 있는 가족의 가치를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려면 가족의 정당성과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는 가족 의식이 필요하다. 가족 의식은 가족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족자산을 전수하는(Burton, 1992) 기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척박한 삶 속에서 구조화된 가족 의식의 전통을 지켜오지 못한 조모는 새로운 가족 의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 혼자 살 때는 의미가 없던 명절 행사 같은 가족 의식도 가족을 이루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지만, 경계 밖에서 다른 조건, 다른 구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유사한 가족 의식을 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어린이날이다, 명절이다 그럴 때가 어려워요. 할머니, 우리는 어디 갈 데 없어?우리는 친척도 안 와?(I1)

조모들이 경험을 통해 실현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가족 의식은 가족 삼대의 존재를 전제한다. 생일을 챙겨주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외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의식도 중간세대가 부재한 가족 안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된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느이 생일 늬들이 챙겨 먹어라 그래요.(I2)

조모들은 스스로 해야 할 역할,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은 양육의 기능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임을(Kellam, Ensminger, & Turner, 1977) 잘 알고 있다. 조모들은 부족한 양육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서적 유대를 통해 가족으로서의 결속을 다진다.

엄마도 아빠도 없으니까 어따 붙일 데가 없잖아요. 정을.(I1)
딱 붙어 팔다리 걸치고 잠들어요. 지금도 그래요.(I4)

정서적 유대는 손자녀에게 뿐 아니라 조모들에게도 훌륭한 대체물이 된다. 한가롭던 노년생활 이면에 자리잡은 쓸쓸함을 함께 함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이다. 활동적인 낮시간과 달리 무위로 보내야 했던 밤시간이 "싸워두 심심치 않은" 가족교류의 장이 되며,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손자녀들과 접합한다. 손자녀들은 타인으로부터의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되는 와병의 시기에 보살핌 행위를 정성껏 행함으로써 조모의 보살핌을 보상한다.

학교 갈라면 아파서 누웠으면 컵에다 물 떠서 접시 받쳐 할머니 나 학교에서 올 때까지 물 잡숫구 있어요 그래요.(I4)
밤에 자다보면 막 다리에 쥐가 나서 쩔쩔 매면 일어나서 주물러 주고..(I5)

조모들에게 있어 손자녀 양육에 뒤따르는 일상의 재구성은 경계 밖 타자로서의 존재감을 자명하게 하지만, 조모들은 이러한 타자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촘촘히 엮어냄으로써 손자녀를 봉입하는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

2) 절대 빈곤의 경계보다 강건한 상대 빈곤의 경계

빈곤의 경험은 손자녀 양육을 맡은 조모들에게 제외된 적이 없는 삶의 양태이다. 모든 인간의 삶에서와 같이 빈곤은 사회적 기회의 박탈을 동반한다. 부양받아야 하는 시절의 빈곤과 사회적 기회 박탈로 인해 조모들은 이후의 삶에서 주류 사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하며, 결혼이나 노동에서 또다른 양상의 박탈을 경험하였다. 빈곤이라는 경계의 안쪽에 머물렀던 경험이 거의 없는 조모들에게 주변성과 외계성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조모들은 자신이 피양육자였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먹을 것

이 보장되는 생활을 비옥한 삶의 지표로 삼는다.

우리 사남매가 큰 집 가서 밥 얻어먹고 새엄마는 보리밥을 며칠씩 해서 먹으니 썩고.(I1)
학교를 보내줬어요, 먹을 걸 제대루 줬어요, 입을 걸 제대루 줬어요?(I6)

절대 빈곤의 생활은 생계부양자의 부재에서 연유하는데, 조모들의 삼세대 생활에서 빈곤을 이끄는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끊어진 적이 없는 삶의 고리이다. 처음에는 부양 해줄 부모의 부재로, 다음은 생계를 이끌어갈 남편의 상실로, 지금은 생계부양을 할 수 있는 기능의 사멸로, 생계부양자는 계속 부재한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사는게 다 그래.(I5)
00이 할아버지가 23년을 누워있고... 머리에 이고 안해 본 것 없어요.(I4)
점심만 가서 30만원씩 받구, 두 달 일해 가지구, 너무 아퍼갖구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넘겨 드러누워 있었어요.(I3)

부재한 생계부양자의 자리는 국가가 대신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다른 생계부양의 수단 없이 국가 지원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정일선, 2004). 국가 지원은 원초적인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경계 내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투입을 받아 생존해 나가는 경계 밖 존재로서의 낙인도 선명해진다. 그러나 평생 생계부양자의 부재를 경험해 온 조모들에게 의료 지원까지 제공하는 생계부양자로서의 국가는 되물릴 수 없는 존재다.

내는 못 벌지 저것들 저렇게 되지 나라에서 멕여 살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I4)
아빠노릇 하는 거는 동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큰 게 있잖아요, 큰 게.(I5)

역사적 맥락에 놓여진 빈곤은 사회적 지향과 조합되면서 빈곤의 심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조모들에게 있어 빈곤은 그 심도로 경험되므로 현재 겪어 나가는 빈곤은 언제나 '더 나은 상태'이다. 예전에는 없던 여러 사회적 개입으로 배를 주리거나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다. 조모들은 남들 보다는 없지만 예전 보다는 가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지한다.

나는 옛날 생각하면서 살아요. 옛날에 그 씨래기 죽 먹구 나물 죽 먹구, 그런 때두 있었는데. 시방은 어렵다구 해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구 살아요.(I6)

그러므로 조모에게 있어 빈곤은 스스로를 단일한 경제 행위자로서 상정할 때의 체험으로 보다는 손자녀들과 이루는 경제 공동체로서 상정할 때의 체험으로 출현한다. 현재 손자녀들이 살아가는 장은 물질 소비의 정도나 대중 문화의 향유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곳이다.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며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점유하는 사회적 적소를 결정

한다. 타인과 관계 맺기도 소비를 동반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애들은 다 쵸콜렛을 주구받구 했다 이거야. 근데 저는 주지두 못하구 받지두 못했다는 거지(I3)
애들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걔들 먹는 거 보고 그럴 때... 그럴 때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I5)

조모들은 손자녀들의 빈곤 체험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그것은 자신의 체험은 아니다. 그래서 조모들은 빈곤에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빈곤은 이전 삶에서 체득한 절대 빈곤의 기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대 빈곤이지만, 손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빈곤의 체험과 같은 것이 된다.

엄마, 아빠 있어 왕자니 공주니 하고 키우는 애들하고 같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I7)

조모들은 절대 빈곤의 기억으로 손자녀의 상대 빈곤을 수용하면서, 스스로 겪었던 빈곤을 손자녀에게서만은 벗겨주고 싶다. 그러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조모와 상품 가치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게 할당되는 사회적 자원은 거의 없다(Dowdell and Sherwen, 1998). 가용 자원이 적은 조모들은 주어지거나 얻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의 희소성을 상쇄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이미 사회적 가치가 매우 낮거나 가치가 상실된 재화들이 조모들이 자율적 행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화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획득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래도 부자 부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신발도 몇 켜리씩 놓고 신고. 애들 실내화도 학교 마당에 가면 그냥 쓰레기 버리는데 가면 천지여, 버린 게.(I2)
빵 시방 읃어가지구 오면서두 아랫집 양쪽에 두 집에 주고...(I6)

비록 시장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재화라 하더라도, 조모가 그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알고 있는 손자녀들은 일단 획득된 자원에는 재명명을 통해 의미를 전환하고 새롭게 부여된 가치에 따라 자원을 활용한다.

그것만 신고 흙 묻으면 털고. 그렇게 좋은 거를 맨날 헌 옷, 헌 것만 입혔는데. 이제 새 것 두 번 사줬어요(I1)
바지 하나 사줬더니 좋아서 걸어놓고(I4)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대부분 소비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나타나는 사회에서 시장 밖 자원들로 생존을 유지한다는 것은 존재의 외계성을 각인하는 행위이다. 지금 빈곤의 의미는 조모들에게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것이지만, 빈곤이라는 경계는 점차 강건해지며, 더욱이 손자녀와 함께 이

룬 가족의 관점에서 빈곤의 경계는 비가역적으로 보인다.

3) 배제와 포섭, 양면의 경계를 지닌 정상 문화와의 화해

인간의 생애주기나 가족 생활주기가 순차적이며 연령별로 적절한 과업이 있고 이것을 달성하여야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유지한다고 볼 때, 조손가족은 규범적인 궤도를 일탈한 가족 형태이며 예기치 않은 역할 전환(Pinson-Millburn et al., 1996)으로 여겨진다. 조모는 부양받을 나이에 양육책임을 맡고 있고 양육을 담당할 중간세대가 부재하므로(Wiener, 2003) 정상 가족문화의 경계 밖에 위치한다.

그러나 생애 대부분을 경계 밖에서 주변적 문화에 몸담아온 조모들은 규범적 가족 생활주기나 가족 역할에 대해 관대하다. 손자녀에게 "내가 엄마, 아빠다"라고 자신있게 언명하면서 부재한 중간세대의 역할까지 자신의 역할에 포괄한다.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할려니까.(I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수자 집단과 같이 조모들이 갖는 '이중 지식'(박정애역, 2000)을 통해 인지되는 외부자 시선과의 충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조손가족 자체에 대한 외부자의 시선은 연민을 포함한다 하여도 정상을 벗어난 존재양식에 대한 외부자의 시선은 차갑다.

참고 참고 또 참고(I4)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더 다지는 거지.(I5)

스스로에 대한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문화의 내면화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잘 구조화된 '이중지식'을 갖지 못한 손자녀들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조모들은 알고 있다. 사회기구에 참여하거나 대인 접촉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대중매체를 통해 정상문화의 내용과 구조를 전달받는 손자녀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어렴풋이 감지한다.

엄마도 없는 고아니 뭐니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서 말해줄 수도 없고 진짜로 분하고(I1)
서러움 받아가면서 부모 없는 거 얼마나 서러워요. 다른 사람은 엄마, 아빠 다 있는 데...(I4)

그러나 정상문화가 배제하는 경계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경계 밖에 위치한 조손가족을 포섭하는 양태들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조모가 자리한 지역사회로 손자녀들이 들어와 이루게 되는 조손가족은 조모가 미리 확보해 둔 연결망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감(Geen, 2004)을 갖는다. 조모와 손자녀라는 단순한 가족 구조에서 생성되지 않는 상호교류 자원들은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다소

간 보충된다. 이웃들은 모자라는 사회적 지지를 공급해주는 훌륭한 공급원이다. “내가 엄마다”라고 공언하며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는 고마운 이웃도 있어, “이웃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이웃과의 교류는 심리적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지원망이 되기도 하여, 어느 곳 하나 기댈 곳 없는 조모와 손자녀들에게 살아갈 힘을 보탠다. 이웃들은 부족한 물질자원의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조손가족이 겪는 팍팍한 생활상황들을 근거리에서 보게 되는 이웃들은 조손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자원들을 형편에 따라 제공한다.

명절에는 떡도 하고 부침개도 해서 놓고 가고(I2)
가게라도 나가면 이거 갖다 해잡수세요(I5)

부모와의 생활에서 혹은 부모와의 격리에서 상흔을 안게 된 손자녀들은 조모들에게 일상적인 양육 기능보다 더 포괄적인 양육 기능을 요구한다. 이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조모들과 손자녀들의 생활에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가져오며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덜어주므로(Minker et al., 1993; Wiener, 2003), 조손가족에게 물적 자원 뿐 아니라 정서적 자원이 된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거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 공부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은 손자녀들에게 가족 내에서 얻기 힘든 다차원적인 자원을 전달하며, 손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동원할 경제적 자원을 갖지 못한 조모들에게 대체하기 어려운 공급원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치를 아는 조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양의 자원을 확보하여 손자녀들에게 유입하려 애쓴다.

그 선생님은 뭐하는 선생님인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처럼 내가 속상할 때 받아주는 선생님이에요.(I1)
저기 복지회에서두 치료해 주잖아요.(I3)

시청,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을 통한 공적 자원의 배분은 조손가족의 자원 목록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노동을 통한 임금 획득이 현재 불가능한 조손가족이 현금을 얻게 되는 경로는 매달 지급되는 생활보조금과 후원금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현금 이외에도 도시락, 김장, 후원물품의 배분을 통해 조손가족은 스스로는 획득할 수 없는 자원의 유입을 경험한다.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자원의 양도 적지 않아, 손자녀들의 교육을 가능하게 해준다. 교회나 학원과 같은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들도 조손가족의 짐을 덜어준다.

동사무소 천만원 융자해주잖아요.(I4)
복지회관에서 우리 이런 수급자들은 더 싸게 해주나 봐요.(I6)

양면의 경계를 지닌 정상문화와 손자녀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조모들은 양가적 전략을 행사한다. 외양으로는 최대한 정상 문화를 모방하여 손자녀의 외계성을 최소화하면서, 심연으로는 가족의 가치

를 내화하여 외계성을 최대화한다. 손자녀의 외계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정상 문화의 문화적 요구에 적절한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하여 “희박한 존재”로서 “희귀한 행위양식”(김미영, 2008)을 가리는 것이다. 특히 경계 밖의 존재로 낙인받은 손자녀들은 행위하기 이전에 이미 주목받으며, 따라서 이들이 벌이는 타인과의 교섭행위는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은 차림새이다.

옷도 깨끗이 입히고 씻겨. 우유냄새 나면 안 되니까.(I2)
할머니하고 산다는 게 지저분하게 학교에 보내면 안 되잖아.(I3)

타인과의 교섭은 정상문화의 행위양식과 경계 밖의 행위양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이다. 특히 경계 밖의 존재로 낙인받은 손자녀들은 행위하기 이전에 이미 주목받으며, 이들의 교섭행위는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모들의 훈육 행위는 대부분 타인과의 교섭에 관련된다.

애들이 흉보니까 하지마라 하지마라 처음으로 한두 차례 때렸어요.(I3)
그래야 인간답게 살지 그냥 날뛰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I4)
할머니가 똥 빨래 다해서 키웠는데 말 안들을거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니가 애기냐?(I10)

정상문화에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손자녀들이 해내기 위해서는 곱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모들은 알고 있으며, 두 문화의 틈새를 오고가는 손자녀들의 노력에 대해 정상 문화의 비판적 시선에서 벗어난 의미를 부여하기 원한다. 역설적으로 조모들이 손자녀의 노력에 부여하는 의미는 정상문화에 통달하지 않았음을 함축한다.

애들이 순해서 다들 칭찬 받아요(I2)
다른 애들 모냥 바라지질 않았어요(I6)

가족의 가치를 내화하여 주변성과 외계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은 고유한 가족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조모와 손자녀들은 자신들이 구성하는 조손 가족이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가족 형태이며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양육 당사자가 아니면서 양육을 수락함으로써 조손가족을 생성한 조모들은 자신들의 양육 수락에 상대적 우위를 부과한다.

이 애들을 내가 안 돌보며는 힘들겠지. 다른 데서 어떤 환경이 닿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며는 이건 바람직한 거다(I4)
할머니 없이 혼자만 사는 애들두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며는 다행이라구 생각해요. 오 늘두 뉴스에 나오두만... 혼자 있다가 개 물려 죽었다고(I6)

이미 원부모와의 가족 해체라는 참혹한 경험을 한 손자녀들은 조모의 부추김 없이도 지금 이루고

있는 조손 가족의 가치를 심화시키면서 그것의 영속을 꿈꾼다. 가족의 영속을 위협하는 예기 불안은 조모의 소멸과 관련된다. 이미 보살핌 제공자의 박탈을 한 차례 이상 경험한 손자녀들은 조모들의 이러한 예기를 공유한다.

할머니, 나하고 오래오래 살자. 둘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 둘이 똑같이 오래오래 살아야 돼.(I1)
할머니 죽으믄 지네끼리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지...(I3)

이렇게 조손 가족 속의 조모들은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주기를 초월하여 부모의 역할을 수용하고 행하면서, 자신들을 일탈자로 규정하는 정상 문화와의 화해를 끊임없이 수행해 간다.

4) 열망하지만 요원한 경계 넘기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계급 간의 이동을 성취한다는 의미이다. 주양육자로서 조모들은 스스로는 이루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손자녀들은 경계를 넘어 진입하기를 소망한다. 계급이 "생산 수단에 의한 관계"를 넘어서서 "처신, 기본적 전제들, 미래에 대한 개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까지를 포함하는 것"(박정애 역, 2006)이라고 볼 때, 계급 간의 이동은 조손가족이라는 가족 형태를 유지하면서 성취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조모들이 바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손자녀의 부모가 가족 안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식과 손자녀 간에 위태롭게 이어진 관계의 끈이라도 두텁게 하고 싶은 조모들의 기대조차 충족되지 않는다.

엄마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I2)
지 엄마두 한 달에 두어 번 왔다 가니까 정두 없어.(I3)

자식들이 다시 양육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해 보지만, 스스로를 부양하기도 어려운 자식들이 자녀를 부양하는 역할을 맡기는 역부족이다. 사회적 조건에 떠밀려 부유하고 있는 자식들의 삶은 손자녀의 삶까지 책임지기에는 너무 척박하다.

지금 놀음방으루 돌아다니는데. 컴퓨터 게임방으루 돌아 다니구. 징역 갔다 와가지구.(I3)
아빠두 벌이가 시원찮구 그러니까 그냥 잠적을 해버리데요.(I6)

현대사회에서 계급의 이동은 부모의 치열한 원조가 더해져도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경제적 여력, 사회적 지위, 노동력의 상품 가치 등의 차원에서 경계 밖의 삶을 사는 자식들이 손자녀의 계급 이동에 힘을 실을 여지는 없다. 지금까지 자족한 삶을 살아온 적이 없는 자식들은 부모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성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다시 조모에게 양도해버린다.

맨날 내 카드내서 긋고 3천만원이 밀렸더라구요.(I1)
빚쟁이들이 와서 젊은 남자 여자 와서 욕할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I5)

조모들은 자신, 자식, 손자녀의 종단적 생애사를 비교하면서, 자신과 손자녀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풍요했던 자식들이 현재 서있는 사회적 위치를 검토한다. 인과적 맥락에 관계없이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수용하다가도, 자식에 의해서 더 황폐한 위치로 밀려난 손자녀를 생각하고 거침없이 가혹한 판정을 내린다. 과거 자식의 양육자였으나 현재는 손자녀의 양육자이며, 회상에 의한 역할보다는 체험하는 역할이 판정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라, 인간이라 또 원망할 때도 있어요.(I4)
괘심하죠. 괘씸한 생각이 더 들죠.(I5)

경제적 무능, 유기, 폭력에 노출되었던 손자녀들의 과거를 보정할 만한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손자녀들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차라리 경계 밖에 존재하지만 안정된 현재의 가족 구조를 유지하기에 비중을 둔다.

할머니, 아빠 호적에서 빠지는 게 있어 그래요.(I3)
엄마 얘기, 아빠 얘기 안 해요. 저희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한 마디두 안 하데요.(I6)

조모, 자식, 손자녀의 전망이 일치하는 지점은 새로운 가족 형태의 구현이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아는 그곳 뿐이다. 그래서 조모들은 하루 빨리 손자녀들이 성인이 되기를 원한다. 비록 자식은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인은 자족과 독립이 가능한 상태라고 가정되므로, 자신의 소멸 뒤에 남게 될 손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안녕은 보장될 것으로 예견한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 형태를 시도하여 가족을 단위로 새로운 가족 형태로 시도하는 경계 넘기는 좌절된다. 조모들은 자신의 양육역할이 평생 갈 역할(Woodworth, 1996; 정일선, 2004)임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계급 이동을 통한 경계 넘기는 "생산적 수단에 의한 관계"를 변형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질 높은 생산적 수단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노동시장이라는 사다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계단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 높은 생산적 수단의 획득에는 적절한 학업 성취와 이에 부수해서 얻어지는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전제된다. 높은 학업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요구되는데, 조모가 사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거의 없다.

공부를 잘 해야 키운 보람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I5)
없다구 그냥 내버려두면 남한테 떨어지구 바보되구.(I6)

학업 수준의 수월성을 보장해줄 것으로 여겨지는 질 좋은 사교육은 일체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조

모들은 손자녀 장래의 삶이 직업 선택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직업 선택의 폭은 학업적 성취와 직결될 것이므로 손자녀들을 독려한다.

자립해야 하니까 남 잠잘 때 공부하고 일해야 하고, 남 걸어갈 때 뛰어가야 해.(I7)

독려의 이면에는 모든 것을 맨손으로 성취해야 하는 손자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연민이 있다. 경계 안의 시선에서는 보잘 것 없는 성취이지만 경계 밖의 조모들은 그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완만하게 손자녀에 대한 연민을 표시한다.

받아쓰기 했는데 두 개 틀리고 다 맞았다잖아요. 붙잡고 저도 울고 나도 울고.(I3)
나는 공부두 잘 한다고 봐요.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뭐 하나 가르쳐 주는 거 없이, 지가 그냥 하니까.(I5)

사회자원의 소비자로 여겨지는 현재의 손자녀가 미래에 성인이 되어 자족과 독립을 이루게 되면 사회자원의 생산자로 탈바꿈하여 사회적 환원을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조모들은 생각한다. 조모에게 있어 경계 안과 밖은 사회적 환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 사회복지 체계, 이웃으로부터 투입을 받아야 양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모들은 소박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사회적 환원을 실천함으로써 손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모형을 보여주려 한다.

내 양이 두 개면 삼분의 이라도 누구 줘야 편해요.(I1)
사실은 남 주는 게 마음 편하지 남한테 얻어 먹으믄 마음이 안 편하걸랑요.(I5)

손자녀 양육이라는 사회적 과업의 수행이 가장 양질의 사회적 환원임을 통찰하지 못하는 조모들은 좀더 직접적으로 손자녀들에게 미래 삶의 모형을 제시한다. 손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더나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통해 경계 안으로 진입하기를 꿈꾸지만, 조모들은 그저 받은 것 만큼 돌려줄 여력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혜택을 받는데 자라 가지고 보답을 어디다 할래 맨날 그라지...감사히 여겨야 사람이지.(I4)
졸업하고 직장갖고 돈 벌면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자주 그래요.(I9)

이미 가족 단위에서 경계 넘기에 좌절한 조모들은 가족구성원 개별단위에서만 경계 넘기가 가능할 것임을 알고 있다. 손자녀들은 조모들과 가족 단위로 경계 넘기를 바라지만, 조모들은 경계 넘기의 단위에서 자신을 소외시킴으로써 손자녀의 짐을 가볍게 하면서 지금은 갖지 못한 충족한 미래를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조모와 손자녀가 예측하는 경계 안의 삶은 각기 다르다.

꼭 받으려고 살면 안 돼요. 내가 100% 주고 세상 떠나면 되지.(I1)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테니 걱정 말어.(I4)

조손가족이 마주한 경계들은 압도적이고 견고하지만 조모와 손자녀들은 경계 넘기를 위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조모들의 양육 경험을 문화기술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손가족의 양육은 대부분 조모가 맡고 있으며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는 이들의 경험이 손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양상을 극대화하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손가족 내에서 양육을 전담하는 조모들은 경제적 수준, 연령, 생애주기, 일상행위양식, 양육 기능 등의 차원에서 대다수의 사람들과 구분되면서 주류적 삶의 경계 밖에 존재한다. 또한 조손가족은 법적 기준, 가족 구조, 가족 가치의 차원에서 역시 경계 밖에 존재한다. 조손가족 내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모들의 경험은 주류사회의 구별짓기에 의해 형성되는 다차원적 경계의 외연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가족을 만들어가는 진행중인 작업이었다.

'다중의 경계 밖에 가족 만들기'라는 문화적 주제는 네 영역으로 나누어 해석될 수 있었다. 이 영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조모들이 자신과 손자녀의 경험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조손가족 외부의 관점과 내부의 관점을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첫째, 조모들은 '경계 밖 일상의 재구성'으로 주양육자로서의 생활을 다시 만들어갔다. 생애주기나 기능이라는 면에서 동년배 노인들과 다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노인으로서의 생활양식을 해체한다. 하지만, 일상의 재구성은 정체성의 변화와도 맞바꿀 수 있는 또다른 삶의 의미를 조모들에게 주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외부의 동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양육을 떠안으면서 그 무게감을 크게 느끼는 존재로 규정되었던 조모들은, 본 연구에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재의미화하며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손자녀와 결합하는 활발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둘째, 조모들은 '절대 빈곤의 경계보다 강건한 상대 빈곤의 경계'와 맞서 손자녀의 빈곤 경험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조모와 손자녀의 빈곤 경험을 같은 속성으로 여기기 쉽지만,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조모들에게 지금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반면 손자녀들이 경험하는 빈곤은 절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세대간 다른 빈곤 경험을 인지하는 조모들의 자원 획득행위는 손자녀들의 빈곤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조모들은 '배제와 포섭, 양면의 경계를 지닌 정상 문화와의 화해'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였다. 조손가족은 강고한 주류 문화와 혼재한 채 존재하는데, 주류 문화는 추상적인 개념 수준에서 조손가족이라는 존재는 배제하지만 구체적 일상에서 부딪치는 조손가족들에게는 관대한 이중성을 보였다.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들도 이러한 이중성을 안고 있었다. 이 이중성에 맞서 조모들은 외양으로는 주류 문화를 모방하려 애쓰면서 내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증폭하려 애쓰고 있었다.

넷째, 조모들은 손자녀들이 경계를 넘어 주류문화에 합류하기를 '열망하지만 요원한 경계 넘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직업 선택이 손자녀들의 경계 넘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조손가족처럼 이 과정을 뒷받침할 모든 자원이 부족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조모와 손자녀들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경계 넘기를 형상화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손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서의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가족 단위로서 조손가족이 하나의 가족 체계로서 갖는 가치를 수용하고 이 체계의 고유성을 강화하고 보존하려는 실천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서는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 이외에 거의 모든 서비스는 조모의 측면에서 혹은 손자녀의 측면에서 개인 단위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조부모 지원, 손자녀 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긋난 역할기대를 갖게 된 조모가 양육경험 중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인 경제적 어려움, 양육방식의 부적절성, 학습지도 등 손자녀 교육문제, 조모의 부재에 대한 예기불안, 부모부재로 인한 손자녀의 정서적 상흔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2세대의 부재로 1세대인 조모와 3세대인 손자녀가 갖게 되는 거리감을 극복하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실천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조손가족을 위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장기적 가족 계획을 세우고 가족으로 잘 기능하면서 가족보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가능할 것이다.

둘째, 조모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양육 기능을 더욱 증진시키고 계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조모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양육기능은 정서적인 것으로 본 연구 결과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모들이 부족한 양육기능을 보충하도록 접근하기보다는 한 가족으로서 조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유대를 강하게 하는 접근이 긍정적 양육환경을 창출하는데 더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중의 경계 밖에서 가족을 만드는 주체이자 주양육자인 조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자신의 양육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조모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를 얻으며 정보를 나눌 때, 조모들은 자신의 가족문제에 함몰되고 고립되어 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문제가 함께 겪고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며 동료집단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조모와 손자녀, 중간세대와의 연결을 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손자녀들은 가족 해체 경험을 하면서 부모에 대해 양가적 태도, 감정을 갖고 있으며, 중간 세대의 부재와 거부와 방임으로 인한 매우 큰 상실감과 상흔을 안고 있다. 조모들은 부양을 받아야할 나이에 양육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중간 세대에 대한 원망을,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의 부덕에 대한 자책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중간 세대와의 화해는 손자녀 뿐 아니라 조모들의 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모, 중간 세대, 손자녀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게끔 도와주는 상담과 교류를 촉진시킬 의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와의 재연결을 위한 지원이나 부모와의 심리적 화해를 위한 상담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조손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지원은 손자녀 양육자 역할에 힘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이현주, 2007)에서도 나타난다.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조손가족이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모, 손자녀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사회 각 지원단체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체계 마련,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이끌어낼 지역주민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손자녀들의 경험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손자녀들의 조손가족 내 피양육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이해를 통해 조손가족이 가족 보호기제로 작동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가 10명에 불과하므로 이 연구결과를 모든 조손가족의 경험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고, 조손가족 집단 내에는 다양한 경험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손가족의 다양성을 의식할 때 일률적이고 단일한 서비스와 정책 보다는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손자녀들을 양육한다는 커다란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지만 그 가치와 존재감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조손가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양의 사회적 배려와 정책 그리고 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미영. 2008. “그 많은 가난은 다 어디로 가 있나”. 한겨레신문. 2008년 6월 12일자.

김유미 · 김명희 · 정여주, 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38:123-163.

김정은. 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 ·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주숙. 1982. “가족변화와 가족 형태”. 『기독교사상』 1982년 5월호.

김미혜 · 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정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노년학』 24(3):153-170.

박정애 역, 2006. 행복한 페미니즘. G. Watkins. 2000.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서울: 큰나.

박종흡 역,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James P. Spradley. *The Ethnographic Interview*. 서울: 시그마프레스.

안 진. 2005.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사를 통한 삶의 이해-목표 상동지역 영구임대아파트거주 여성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 2005년 공동하계학술대회 자료집. 381-415.

양영자. 2007. “손자녀교육을 위해 이농한 후기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노년학』 27(1):235-254.

오선영 · 장혜진 · 조윤정. 2006.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아동.권리연구』 10(4):577-604.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Deborah K. Padgett.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서울: 나남출판.

이동기 외 역, 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Alf Ludtke. *Alltagsgeschichte*. 서울: 청년사.

이현주. 2007. “대리양육 위탁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정-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노인복지연구』

37:361-392.

정일선. 2004. “농촌 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적응”.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조 은. 1990. “역사적 형태로서의 가족과 계급”. 『사회와 역사』 20:11-41.

최종철 역,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Pierre Bourdieu. *La Disti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서울: 새물결.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207-222.

허남순. 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243-270.

Berrick, J. D. 1991. “Welfare and Child Care: The Intricacies of Competing Social Values”. *Social Work* 36(4):345-351.

Brown, L. B. 2003.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 In-depth Phenomenological Study”. A Dissertation of New Mexico State Univ.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ais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744-751.

Burton, L. M. 1995. Intergenerational Parents of Providing Care in African-American Families with Teenage Childbearers : Emergent Patterns in an Ethnographic study. In Bengtson, Schaie and Burton(Eds.), Adult Intergenerational Relations: Effects of Social Chang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79-96.

Carolan, M. C. 2003.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Heroism, Idealism, and Family. A Dissertation of Institute for Clinical Social Work.

Dowdell, Elizabeth B. and Laurie N. Sherwen. 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4(5):8-13.

Fuller-Thompson, Esme. and Meredith Mikler. 2001.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2):201-209.

Geen, R. 2004. “The Evolution of Kinship Care Policy and Practice”. *The Future of Children* 14(1):130-149.

Gibson, P. A. 2002. “Caregiving Role Affects Family Relationships of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as New Mothers Again: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8(3):341-353.

Hayslip, Bert Jr, R. Jerald Shore, Craig E. Henderson, and Paul L. Lambert. 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53B(3):164-173.

Jendrec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609-621.

Jendrec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 Circumstance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2):206-216.

Kellam, S. G., M. E. Ensminger, and R. J. Turner. 1977. “Family Structure and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Concurrent and Longitudinal Community-Wide Studies”. *Arch Gen Psychiatry* 34(9):1012-1022.

Kivett, V. R. 1991. “Centrality of Grandfather Role among Older Rural Black and White m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250-258.

McLean, Beth and Thomas Rebecca. 1996. "Informal and Formal Kinship Care Populations: A study in contrasts". *Child Welfare* 75(5):489-505.

Minker, Meredith, Diane Driver, Kathleen M. Roe, and Katherine Bedeian. 1993. "Community Interventions to Support Grandparents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3(6):807-811.

Newby, D. H. 1993. *Intergenerational Caregiving: Transition from Grandparent to Parent*. Boston. MA: Boston College.

Pinson-Millburn, Nancy M., Eleen S. Fabian, Nancy K. Schlossberg, and Majorie Pyle. 199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548-554.

Sands, R. G. and R. S. Goldberg-Glen. 2000. "Factors Associates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 49(1):97-105.

Scannapieco, Maria, and Sondra Jackson. 1996. "Kinship Care : The African American Response to Family Preservation". *Social Work* 41:190-196.

Whitley, Deborah M, Susan J. Kelley, and Theresa A. Sipe. 2001.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Are They at Increased Risk of Health Problems?". *Health & Social Work* 26(2):105-114.

Wiener, P. L. 2003. "A Qualitative Study of Jewish Grandparent Caregivers in Florida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Wilson, M. N. 1989. Chil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black extended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380-385.

Woodworth, Renee S. 1996. "You're Not Alone, You're One in a Million". *Child Welfare* 75:619-635.

A Story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an Ethnography:

Constituting a Family beyond the Multiple Boundaries

Chang, Hae-Kyung
(Catholic University)
Son, Hyun-mi
(Catholic University)
Lim, Jung-hyun
(Catholic University)

Due to the change of socio-cultural conditions, family dissolving is increasing. As an alternative,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are also increasing rapidly and many show deep concern at this phenomenon.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were approached through policy-makers' and professionals' perspective, not through insiders' view. The purpose of this ethnographic study were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makings of grandmothers who are raising grandchildren. 22 narrative interviews with 10 grandmother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The cultural theme in rasing experiences of grandmothers is 'Constituting a family beyond the multiple boundaries'. This theme include four cultural meanings: 'Recunstuction of everyday life beyound boundaries', 'Boundary of relative poverty more rigid than boundary of absolute poverty', 'Compromising constantly with normal culture having both inclusion and exclusion' boundaries', 'Having aspiration toward crossing the boundaries'.

The policiy-makers and practitioners for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should recognize the experiences and meaning-making of these families and should perform culturally perceptible and family-centered policies and practices.

Key words: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the experience of raising, ethnography.

[논문 접수일 : 2008년 11월 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월 29일]